

「공포를 날려버리는
글쓰기 방법」
2호 크우레, 김종영 역
저우나제이션북스,
2009

06

대학의 글쓰기 자극과 텍스트 장르

생각을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쓴다.

- 빌헬름 부슈

이 장은 대학에서 어떠한 종류의 텍스트를 써야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써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하는 텍스트 종류(장르)는 모두 다른 기능을 갖고 있고, 다른 논리를 추구하며 언어적으로 다른 형태를 요구한다. 모든 종류를 다 숙달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글쓰기 동기를 숙지하고 전공에서 중요한 장르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다양한 문체 변형과 구조 변형을 실험하는 일도 중요하다. 세미나 리포트와 연구 보고와 같은 몇몇 장르는 모든 전공 분야의 핵심 장르이기 때문에 앞 장에서 이미 다루었다. 이 장은 완전한 읽을거리라기보다 오히려 참고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전공과 학업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만 골라 읽으면 된다.

개관

학술적 글쓰기는 아주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학술적 글쓰기에 유일한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종 언급하고 있지만) 환상이다. 현대 글쓰기 교육학의 목표는 텍스트를 세분화해서 다루는 것이다. 글쓰기 뿐만 아니라 읽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다음의 텍스트 종류를 ‘열람’하고 이 텍스트 가운데 몇 개를 골라 그 논리와 사용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장르를 선택하라. 그리고 텍스트를 생산할 적에 실제로 필요한 읽을거리에 몰두하라. 학문의 텍스트 세계를 보다 정확하게 배울 목적으로 이 장을 이용하라.

서술한 장르는 그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몇몇 장르는 대개 다양한 기능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번 분류할 수도 있다.

일시적 텍스트(받아 적기, 발췌, 개요서): 이들 텍스트는 과도기 텍스트로 학습 과정, 연구 과정이나 인식 과정의 중간 성과를 확인하는 데 이용한다. 이러한 텍스트는 대개는 두 번째 공정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목적(그리고 해당 텍스트 종류)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손질한다.

연구 묘사(연구 보고, 연구 기사, 문헌 보고, 의견서): 이들 텍스트는 학자들이 자기들의 연구 성과를 다루는 데 중요한 장르다. 대학 학업 과정에서 이들 텍스트는 벌써 석사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에서 학습 능력보다 더 자주 요구되고 있다.

문서 작성(실험 보고, 프로토콜): 이들 텍스트는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과정을 기록하는 데 이용한다. 이들 텍스트는 종종 직접 이용하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 의심이나 질문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보존해야 한다.

교수법상의 장르(세미나 리포트, 학습 일지, 서평, 포트폴리오, 비평 에세이, 발표문, 보고서): 이들 텍스트는 학습 맥락에서 다양한 목적에 사용하고 종종 시험 성적으로 요구한다. 학습 상황 이외에는 거의 만나기 힘들다. 하지만 종종 유사한 형식들이 나타난다. 예컨대 세미나 리포트는 연구 보고와 비평을 하는 서평과 비슷하다.

직업적 장르(웹용 텍스트, 기술적 기록, 비평, 설명): 비록 대학 학업 과정에서도 종종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들 텍스트는 오히려 직업적 맥락이나 비학문적 맥락에서 쓴다. 하지만 학술적 텍스트 세계는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 따라서 이들 텍스트를 만드는 법, 학술적 텍스트 종류와 이들 텍스트의 차이와 과도 형식을 아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받아 적기

강의에서 받아 적기는 들은 것을 더 잘 수용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데 쓰이고, 소재를 복습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세 이래의 강의는 대학 수업의 가장 중요한 유형 중 하나가 되었다. 중세의 강의는 오히려 받아 적기의 형식을 띠었다. 그러니까 교수가 대학생들이 자구적으로 받아 적게 될 텍스트를 낭독하는 방식의 받아 적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인쇄된 서적이 없고 낭독을 통해 함께 텍스트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오늘날의 강의는 오히려 멀티미디어 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개괄적인 지식을 교수법적으로 잘 준비해 시연한다. 이를 위해 구입해야 하거나 인터넷에서 끌어와야 하는 강의 원고가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받아 적기가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교수의 강의는 종종 강의 원고와 다르고 둘째, 받아 적기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가 강단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쓰게 된다.

안젤리카 슈테츠(Angelika Steets, 2003)가 기술한 것처럼, 텍스트 유형으로서의 받아 적기는 다른 텍스트 유형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일시적인 특성을 받아 적기에 결부시킬 수 있다. 이 점은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속도에 따라 결정한다. 받아 적기는 구두 강연을 전승하는 데, 그러니까 실제로 구두로 설명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는 데 이용한다. 게다가 받아 적기는 일시적 텍스트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기 전에 지식을 일시적으로 고정시키는 데 이용하는 텍스트인 셈이다. 받아 적기는 일시적인 텍스트를 빨리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 이 텍스트에서는 강연의 본질적인 것을 담아야 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제외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짧은 시간 안에 적어야 할 것과 제외시켜야 할 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구분

해야 할 것인가? 슈테츠(2003)는 대학생들의 받아 적기를 분석한 뒤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즉 분석한 글의 80%는 받아 적기의 구조적인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글은 본질적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받아 적기는 다행스럽게도 제시해야 하거나 어딘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두로 발표한 자료에 익숙하기만 하면 된다. 들은 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나중에 검사하는 것이다. 어떠한 개념을 참조해야 하는가?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하는가? 알지 못하는 이름은 어디에 있는가? 받아 적기의 질은 전공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높아진다. 그런 까닭에 처음 듣는 강의를 정확하게 받아 적지 못했다고 해도 전혀 낙담할 일이 아니다. 강의를 받아 적으면서 빠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지식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받아 적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문자 그대로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말고 요약하기 전에 우선 진술을 경청하라.
- 중심적인 주제를 그때그때마다 표제어로 요약하라.
- 이름을 완전하게 기록하고 철자법이 분명하지 않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문의하라.
- 여러분의 목차를 강연에서 제시한 목차와 맞추어라.
- 강연을 들으면서 나중에 찾아보거나 참조하고 싶은 것을 기록하라.
- 강연 뒤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을 기호로 표시하라(강연 후에 그럴 기회를 제공한다면).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일종의 표준화된 보고와 연결해 일어나는 특정 사실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수업, 세미나, 강의, 단체 모임, 실험이나 시험 대화일 수 있다. 대학 수업에서 프로토콜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멜라니 몰(Melanie Moll, 2001)은 프로토콜이란 받아 적기와 마찬가지로 대개는 구두 담론을 적는 것이고 복잡한 현실을 증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프로토콜은 보통 구두적 성질과 문자적 성질의 교점에 위치한다.

프로토콜은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추이와 관련하고 무엇보다도 일어난 일, 그러니까 행하고 처리하고 언급하고 연구하고 측정하거나 경험한 것을 간단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특히 세미나에서 프로토콜을 요구하지만, 실습이나 연구도 요구한다. 모든 프로토콜은 무엇인가를 문서로 작성할 것을 주문받는다. 이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는 그때그때의 맥락이 결정한다. 따라서 프로토콜은 멜라니 몰(2001, p.81)이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예컨대 세미나의 토론에서 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걸러내야 하는 압축적인 언어 행위 유형이다.

프로토콜의 적절성은 목적에서 결정한다(지식 토론하기, 결정 내리기, 데이터 조사하기, 검사하기 등). 프로토콜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고 목적에 비추어 중요한 것만을 기록하면 된다. 수업에서 행하는 프로토콜은 학습하면서 일어난 중요한 모든 것을 묘사해야 한다. 이것은 거론된 주제, 논거, 이론, 쟁점일 수 있다. 하지만 농담이나 여담은 아니다. 시험 프로토콜은 모든 질문과 대답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시험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한담(閑談)은 넣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프로토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Bünting, Bitterlich & Pospiech, 1996, p.29).

- **자구적 프로토콜:** 예컨대 법정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속기로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한다.
- **진행 프로토콜:** 회의 진행 과정을 요약해서 정보를 담는다. 이때는 가장 중요하게 기여한 것을 기록한다.
- **결과 프로토콜:** 가장 중요한 결정이나 회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다. 하지만 선행한 토론은 기록하지 않는다.
- **기억 프로토콜:** 논의나 회의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나중에 기록한다.

학문에서 프로토콜은 예컨대 실험 프로토콜이나 실험실 보고에서처럼 연구의 기록으로도 그 의미를 갖는다. 프로토콜은 실험적 연구의 원본으로 연구, 측량 작업, 결과, 반응 등을 증언한다. 프로토콜은 마누엘 타이즌(Manuel Theisen, 1993, p.154)이 말한 것처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중요한 모든 정보의 객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토콜은 해석적으로 첨가하고 순서를 바꾸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단념해야 한다.

프로토콜은 표준화된 형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설문지와 유사하게 특정 정보를 알리는 ‘프로토콜 카드’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프로토콜은 공히 날짜, 시간, 참여 인원, 장소, 특이한 사건(예컨대 방해요소, 중단)을 상세하게 기록할 의무를 진다.

멜라니 몰(Melanie Moll, 2001, p.281)은 프로토콜 표지에 대학과 연구소, 세미나 유형과 세미나 명칭, 학기와 연도, 세미나 지도교수와 프로토콜 작성자 그리고 날짜를 정확하게 써넣는 것이 세미나 프로토콜의 형식적 특성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서 세미나 프로토콜은 보고한 주제를 제시해야 하고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보고를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거론하고 사용했던 참고문헌을 완전하게 표기해야 하며 사용했던 자료는 부록에 별도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 프로토콜은 발표와 강연을 짧게 요약하는 것일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명과 토론

논거, 반박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발췌

그 밖의 일시적 텍스트 유형은 발췌다. 시험공부를 위해서건 아니면 나중에 자신의 텍스트에 사용하기 위해서건 텍스트에서 본질적인 것을 꺼내어 적은 것을 발췌라고 한다. 발췌는 우선 요약의 의미를 지닌다. 이 경우 원본 텍스트를 다소 압축할 수 있다.

발췌는 읽기 프로토콜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읽은 것이나 읽으면서 생각한 것 그리고 읽은 것으로 하고 싶은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읽은 것을 단순히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논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나중에 글을 쓸 적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이때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나중에 자신의 생각과 읽은 것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발췌에서 원본 텍스트를 여러 목소리로 묘사해야 한다. 이 말은 내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무엇을 쓰고 발견하고 고안하고 제시하고 연구하고 해석하였는지 등을 보고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동시에 텍스트에서는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늘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 밖의 저자를 텍스트에서 인용했을 경우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특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분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해야 한다. 보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하넬로레 베버(Hannelore Weber, 1994), 화. 『일상적 감정의 심리학』
(바인하임: 벨츠 출판사)에서 발췌

베버는 감정의 사회적 규칙의 의미를 묘사하고 있다(p.23). 그는 '감정 규칙'의 존재를 가정한 사회학자 호흐실트(Hochschild, 1979)의 이론도 인용하고 있다. 이 규칙(독일어 개념 감정 규칙은 베버가 사용하지 않았다)은 호흐실트의 이론에 따라서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베버는 감정 규칙을 가정하는 것이 감정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현상을 증명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나는 그가 이 진술을 생물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화 연구의 지식과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하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 맥락에서 '여러 목소리로'라고 하는 말은 보고하는 사람의 진술이 인용한 저자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것인지를 늘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발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읽은 사람의 기록이다. 발췌를 위해 A4 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발췌해서 생겨난 종이를 파일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움베르토 에코(1988, p.150 이하)가 권한 바 있는 카드식 색인 목록이나 독서 카드(가능하면 A5크기)다. 이것은 분류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잘 정리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발췌한 것을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인데 나중에 자료를 사용하려고 할 때면 미리 자료를 전자 공학적으로 처리해 놓아야 한다. 단점은 색인 카드처럼 자료를 잘 분류, 정돈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엔드노트 같은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는 참고문헌 데이터뱅크지만 모든 참고문헌 목록에다가 임의로 요약을 방대하게 붙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엔드노트, 리트-링크, 라이트랏이나 시타비와 같은 참고문헌 데이터뱅크는 결국은 참고문헌 목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이에 대해서는 5장 139쪽 이하에 있는 '체계적으로 조사하기'를 보라).

발췌를 문서로 작성할 경우 일련의 중요한 표시가 들어 있어야 한다.

- 발췌한 저작물의 참고문헌 표기나 도서관 도서 분류번호는 나중에 인용할 때 힘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 완전하게 표기해야 한다.
- 표제어는 발췌한 것을 나중에 해당 장이나 텍스트 구절에 빨리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발췌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뺀 것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도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재현할 적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 가장 중요한 구절은 자신의 말로 요약해 놓아야 한다.
- 만일 인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구절은 자구 하나하나 적어두어야 하고 인용부호를 이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읽은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논평을 달고 평가하는 것은 모든 발췌에서 특히 중요한 구성 요소다.
- 해당 쪽수 표시는 발췌할 적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참조하거나 자구대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원본을 추후 다시 한 번 통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 복사일 경우에는 보통 텍스트 표시기로 표시하고 여백에 주제를 언급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작업은 보통 발췌하는 식으로 짧게 요약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나중에 복사한 것이 점점 늘어나 쌓이면, 짧게 요약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다시 읽어야 한다.

초록

초록은 논문이나 출판물을 대략 A4 용지 3/4 분량으로 요약하는 것을 말한다. 초록은 잠재적 독자가 그 연구물이 자기에게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출판물의 내용 정보를 빨리 받도록 하는 데 이용한다. 학술적 정기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찾고자 하는 제목을 초록과 합

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뱅크가 있다. 대부분의 학술적 정기간행물(과 많은 서적)은 초록을 앞에 제시하도록 출판할 적마다 요구받고 있다. 초록은 저자가 만들고 찾아낸 것을 언급한다. 대부분의 초록은 그 구조를 놓고 볼 때 연구 보고, 연구 기사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간결한 형태(약 두 문장)로 기술하고 있다.

- 서론: 어떠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맥락상 어떠한 원리나 이론을 이용했고 무엇을 연구했는가? 연구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연구의 결함이나 지식의 결함은 무엇인가? 어떠한 가설을 좇고 있는가?
- 방법론: 결핍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저자가 연구에서 무엇을 행했고 어떠한 방법론과 연구 대상 그리고 평가방식을 사용했는가?
- 성과: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긍정적 유형과 부정적 유형의 성과)
- 토론: 성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실제 작업, 그 밖의 연구, 이론 논의 등을 위해 어떠한 권유를 끌어낼 수 있는가?

초록은 연구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담지 않는다. 능동문이나 수동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저자는 …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되었다”). 반면에 1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할 때도 있다(“나는 …을 보여줄 것이다”).

세미나 리포트나 졸업논문에서는 종종 결론을 요구하는데, 거기에서는 ‘요약과 전망’ 또는 ‘요약과 토론’ 또는 ‘개괄적 요약’을 거론한다. 초록은 몇 가지 특징에서 요약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너무 짧고(대개 150개의 낱말이나 1200개의 기호를 넘지 않는다) 둘째, 늘 논문 처음에 오고, 셋째, 본문에 나오지 않은 독자적 평가나 결론은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괄적 요약은 본문에 포함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반해서 초록은 본문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예컨대 데이터뱅크 안에 들어 있는 초록은 본문 없이도 이해할 수 있다.

개요서

개요서도 일시적인 텍스트다. 그러니까 글쓰기 프로젝트에서 중간 단계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다. 개요서는 글쓰기 프로젝트를 위한 일종의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글쓰기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한다. 많은 글쓰기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가 어떠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계획 세우기가 어렵지만 이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일이다. 개요서는 글쓰기 프로젝트의 방향 정립 단계와 계획 단계를 종결짓는다고 할 수 있다(5장 136쪽 이하의 '개요서 쓰기'를 보라).

개요서는 계획하고 있는 연구를 짧게 기술하는 것으로, 문제 제기, 목표 설정, 자료와 참고문헌의 범위, 평가 단계, 방법론, 연구 성과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연구를 위한 시간 계획은 글쓰기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조사, 자료 찾기, 자료 평가, 초고 쓰기, 수정을 위한 시간, 레이아웃 그리고 최종 교정이다.

세미나 리포트/숙제

학술적 숙제라고도 부르는 세미나 리포트는 독일어권 대학의 수업에서 가장 통용되는 장르다. 세미나 형식의 수업 전통으로부터 온 세미나 리포트의 기원은 세미나 리포트를 학술적 문헌을 가공하거나 연구하여 학습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세미나 리포트는 출판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이용하는 교수법상의 장르다. 그렇지만 세미나 리포트는 학술적 연구를 출판할 때도 적용하는 전통을 똑같이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세미나 리포트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학술적 작업을 위한 기술을 숙달하는 일과 상대적으로 독창적인 주제를 스스로 끌어내는 일이다. 그런데 이 주제는 그 유형이 세미나 전체 주제에 속해야 한다. 세미나 자체는 일반적으로 주제를 소개하는 일이고 세미나 토론은 담론에서 그 주제를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세미나에서는 대개 정한 주제를 발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세미나식 수업의 일부다. 이때 종종 발표 요지문이나 핸드아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는 알아낸 것의 일부가 들어 있어야 한다.

세미나 리포트를 장르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세미나 리포트는 그 규모(예컨대 세미나 리포트는 논술식 시험 답안보다는 짧다)와 작업방식(세미나 리포트는 손수 작성하고 필자가 학술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에 따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장르와의 유사점(세미나 리포트는 학술적 정기간행물에 들어 있는 논문과 유사하다)이나 최소한의 전제(학술적 인용방식이 들어 있어야 하고 학술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를 들어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규정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확실한 형태상의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개개 전공 분야에 따라 세미나 리포트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 안에서 변이형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해주는 개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헬무트 그루버(Helmut Gruber)와 그의 빈 대학 동료들(2006, p.250)은 여러 학문 분야의 세미나 리포트를 연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즉 다양한 전공 분야의 세미나 지도교수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끌어내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 양식과 레이아웃의 통일
- 학술적 문체

- 내용적으로 분명한 구성('핵심')
- 논증과 독창적 의견의 근거 제시
- 이차문헌의 사용과 올바른 인용

이 밖의 요구 사항은 세미나 지도교수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요구 사항을 보면, 세미나 리포트라는 것이 개인마다 달라서 추구해야 하는 표준 형식은 없다고 하는 암시가 들어 있다. 그리고 학술성의 일반적인 표상이 침해받지 않는 한 형태를 위한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는 암시도 있다. 어쨌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의 전공에 들어 있는 국지적 글쓰기 문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금 교수자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세미나에서 주제를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련의 주어진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넓은 틀 안에서 아예 주제를 스스로 하나 찾으라고 하는 식이다. 주제의 폭과 주제와 결부되어 있는 과제의 폭은 상당히 넓다. 주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정해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텍스트나 여러 텍스트를 읽고 요약하여 발표하기(이것은 보통 학업을 시작하는 기초 세미나에서 실시한다)
- 주어진 주제의 경계를 정하고 주어진 참고문헌 목록에 따라 연구 상황/이론 상황의 개요를 제출하기
- 주어진 주제에 문제 제기를 하고 덧붙여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작은 연구를 수행하기(예컨대 역사적 출처를 평가하기, 매체 분석하기, 태도 관찰하기나 인터뷰하기)
- 세미나 자체의 틀에서 주제를 찾고 전공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이것은 졸업논문의 요구와 아주 유사하다)

보고/발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보통이다. 오늘날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발표를 위해 세미나 리포트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자료를 다시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을 구두로 전달하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다르게 조절해야 한다. 구두 발표를 위한 글쓰기는 글쓰기의 독특한 유형으로 텍스트를 굳이 다듬지 않아도 되는데도 어렵다. 이러한 텍스트 유형의 특성은 낭독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낭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청중을 집중하게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특히 논증적 텍스트는 구두로 발표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텍스트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낭독을 하면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읽기 텍스트다.

구두 발표는 균형이 잡혀서 나타나야 하는 두 가지 층위를 늘 갖고 있다. 바로 내용층위와 메타층위다. 메타층위는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리고 왜 말하는 것인지를 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층위는 실제 대상의 사안 보고로 구성된다. 메타층위는 다음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왜 이 주제인가?
- 이 주제는 세미나 주제와 어떠한 맥락에 있는가?
- 이 주제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어떠한 문제 제기로 연구를 시작하였는가?
- 소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궁극적으로 청중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 어떠한 자료를 정리하고/읽고/고려하였는가?
- 중심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 열려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 최종적으로 청중과 토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메타 층위에서의 전달은 청중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이 전달은 사고와 이해의 보조 수단으로 바로 청중에게 보내지기 때문이다.

내용 층위에는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너무 다양해서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다. 몇 가지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주제의 국지화: 어떠한 전공 분야와 주제 영역에서 주제를 다루는가?
인접하고 있는 주제 영역과 상위 주제 영역은 어떤 것인가?
- 핵심 개념의 간결한 설명
- 주장하려고 하거나 증명하려고 하는 핵심논제는 무엇인가?
- 이론적 맥락(어떤 이론을 논의하고, 이 이론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가?)
- 인적 맥락(누가 무엇을 연구하였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그룹 그리고 어떠한 기관이 관여했는가?)
- 가장 중요한 연구(연구의 유형, 연구의 구성, 성과)
- 논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거
- 가장 중요한 경쟁적 단초
- 여러분의 추론

그 이외에 텍스트와 그림 사이를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평가에서 온 난해한 미해결 문제는 예컨대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구두 발표에서는 그림과 도해를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구두 발표에서는 개별 관점을 본보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청중이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보기를 든다 함은 예컨대 개별 실험, 개별 이론, 개별 연구 그룹, 개별 텍스트, 개별 예술작품 등을 훌륭한 시각적 지원을 받아 설명하고 거기에서 다른

실험, 전시품, 이론 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일이다.

교수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발표를 하라. 모든 구두 발표(전문가 동료들 위한 발표도 마찬가지)는 이미 일종의 잘 알려진 지식 발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설명을 위해 복잡함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여러분의 주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은 오로지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분명해지도록 해야 한다.

훌륭한 지원 수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일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 예비 지식만 가지고도 매력적인 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지만 이것은 설명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함축하고 압축하도록 유혹하기도 한다. 예컨대 볼렛-포인트-폴리오(Bullet-Point-Folio: 주의를 끌기 위해 굵은 점을 찍어 표기하는 방식 — 옮긴이)의 형식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보통은 더 이상 소재 분류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개별 요소 사이의 맥락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도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볼렛-포인트-폴리오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

구두 발표를 위한 본보기로 단순히 연결한 텍스트를 써서는 안 되고 일종의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 시나리오 속에는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글이 들어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띌 수 있다.

- 서곡: 핸드아웃을 나누어주고 폴리오를 준비한다. 발표 제목이 들어 있는 폴리오를 열어놓는다. 조용해질 때까지 또는 교수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 시작: 나 자신/연구 그룹을 소개한다(제목, 부제, 발표자가 들어 있는 폴리오를 연다).
- 도약: 내가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였고 그때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 프레임 설명: 내가 한 일을 소개한다(어떠한 참고문헌을 읽었고 어떠

한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어떠한 문제를 추적했는지 소개한다).

- **경과 설명:** 발표 목차가 들어 있는 두 번째 폴리오를 펼친다(이것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 **시간 설명:** 설명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준다.
- **주제 소개:** 내겐 무엇이 중요하고 주제에서 특별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지 소개한다.
- **정의 삽입:** 핵심적인 개념 두세 개를 설명한다. 덧붙여 본문이 들어 있는 폴리오를 열어놓는다.
- **맥락 설명:** 다음 폴리오를 연다. 예컨대 이론의 거시구조가 들어 있는 폴리오를 연다.
- **청중에게 질문:** 청중이 이 정의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질문을 한다.
- **핵심 논제 설명:** 다시금 본문이 들어 있는 폴리오를 펼친다.
- **논제의 근거 설명(구두로):** 바로 이 논제가 왜 그러한지를 설명한다.
- **논거와 전거:** 이 논제를 논증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세 개의 논거가 존재한다. 이 논거는 다음의 전거를 통해서 재차 지지된다.
- **반박:** 이어지는 반박은 간결하게 설명하고 논박한다.
- **결론:** 결국 나는 내 논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추론한다.

발표용 시나리오가 언제나 이러한 모습을 띌 수 있는 것처럼, 시나리오 오는 무엇을 해야 할지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설명할 것을 다만 핵심적인 단어 몇 개로 나타내고 이를 다시 곧바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그룹 발표를 위해서도 적당하다.

실험실 보고

실험실 보고는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연구 행동을 기록하고 모든 실험적 작업의 중요한 텍스트 유형이다. 실험실 보고는 실험대장에 들어 있어야 한다. 실험대장은 노트로 묶여 있어야 하고 쪽수를 분리하지 않고 실험실(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을 연속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에벨과 블리페르트(Ebel & Bliefert, 2003, p.5 이하)가 제시하고 있는 자세한 설명을 따른다. ‘기록’이라고 하는 말은 실험대장이 연구 작업의 일부이고 여러분의 연구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험대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적에, 심지어 법정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기재는 간결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기재는 날짜와 시간이 들어 있어야 한다. 실험대장의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 있어야 한다.

- 실험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
- 수행한 실험의 개요
- 사용한 기구, 입장 그리고 기기 조절
- 수행한 행동 단계
- 우연한 관찰
- 소견과 결과
- 사용한 기기 명칭과 알아낸 (일차 데이터의) 측정치
- 데이터와 컴퓨터 표현의 지시
- 실험의 종결과 다음 연구 단계의 전망

에벨과 블리페르트(2003)는 연구가 연속적으로 길게 이어질 경우, 실험적 연구의 일부를 평가하는 중간보고를 작성할 것을 권한다. 이것은

생각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종보고를 작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연구 보고와 연구 소논문

오늘날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는 의심할 바 없이 연구 보고다. 연구 보고[리서치 리포트(research report)]와 연구 소논문[리서치 아티클(research article)]은 자연과학, 의학과 공학의 표준 텍스트 유형이고 오늘날에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 텍스트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텍스트는 연구를 정확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연구 보고와 연구 소논문은 출간한 장소와 그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연구 소논문은 학술적 정기간행물로 출간하고 정기간행물의 출판 원칙을 통해 범위를 아주 한정한다. 이에 반해서 연구 보고는 책으로 출간하든가 아니면 돈을 제공하는 기관을 위한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로 작성한다. 이에 상응해서 연구 보고는 자유재량의 여지가 많고 서술하는데 있어도 아주 자유롭다.

또한 연구 보고는 특히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학술적 장르일 것이다. 특히 찰스 베이저먼(Charles Bazerman, 1988)과 존 스웨일스(1990)의 연구는 연구 보고의 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 보고의 생성(기원, 발생)은 자연과학 자체의 생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찰스 베이저먼(1988)은 최초의 두 학술적 정기간행물 가운데 하나인 《영국학술원 회보(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를 분석하였다. 그러니까 이 간행물의 1665년 창간호부터 1800년까지를 조사하면서 연구를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던 것이다. 이 작업은, 발전하고 있는 자연과학의 과제가 연구 방법론의 개발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에도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관찰자들을 실험실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영국학술원(왕립 협회)의 다른 회원들 앞에서 실험을 직접 수행했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 연구를 위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연구의 신뢰성이 중요했고 다만 연구 보고와 더불어 하나의 형식에 천천히 적응되었다. 이 형식은 연구를 설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 종이 위에 쓴 보고를 신뢰할 만한 증거로 다른 학자들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오랜 과정을 거쳐 일어났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것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구 보고서로 수용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다. 베이저먼이 연구 기간에 기술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실험적 절차를 기술하는 일을 보다 세분화시켰고, 실험이 방법론적으로 이끌어낸 행위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났다.
- 성과를 측정하고 측정치를 더욱 정확하게 보고했다.
- 가설을 작성하고 실험은 가설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 연구가 추적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더욱 세분화했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 관련을 맺었다.
-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다.
- 기대하지 않은 성과를 특별히 주목했다.
- 이의와 반론을 점점 더 토론하고 반박했다.
- 실험을 일반적인 이론과 지식 목록으로 통합했다.
- 실험 보고가 혼자서만 알면 그만인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납득이 가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베이저먼이 연구 기간의 끝에서도 여전히 빠뜨리고 있는 것은 실험을 다른 사람의 연구와 광범위하게 관련짓는 일이었다. 1800년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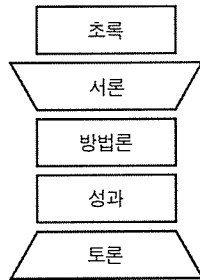


도표 15 IMRAD 도식, 연구 보고의 기본 모형

보고는 무엇보다도 연구자 자신의 저작과 그 해석에 대한 연구자의 보고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자연과학에서 논증적 지식 서술의 단초가 이 시기에 최초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새로운 연구는 분명한 윤곽을 갖고 있는 기존 연구 위에 세워지고 보고된 자신만의 성과는 이 연구 상황과 다시 관련지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연구 소논문은 학술적 정기간행물용으로 작성되고 따라서 보다 짧아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 보고와 구분된다. 학술적 정기간행물은 지면을 한정하고 있어서 쪽수 제한이 엄격하다. 이에 반해서 보고는 대개 기금 제공자나 연구 지원기관을 위해 작성하고 이에 상응해서 분량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실제 연구도 원칙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도교수는 보통 연구 소논문에 방향을 맞추어 서술을 간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서술을 위한 틀 조건을 합의할 수 있다.

연구 보고와 연구 소논문을 위한 기본 형식은 동일하다. 이 형식은 서론(Introduction), 방법론(Method), 성과(Results), 토론(Discussion)의 첫 글자에서 따온 IMRAD 도식을 따른다. 약자 'A'는 '초록(Abstract)'이라고 하는 말과 마지막 두 단어 사이에 오는 '그리고(and)'라는 뜻일 수 있다

(도표 15 참조).

IMRAD 도식은 연구 소논문의 기본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설명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서론이 나머지 연구 영역에 있는 보고를 확정하고 있고 이 보고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주제로 이끈다. 반면에 토론은 보고의 성과를 다시금 그 밖의 연구 맥락에 연결시킨다.

연구 소논문을 더 정확하게 고찰하면, IMRAD 도식에 들어 있지 않은 몇 가지 요소를 더 발견할 수 있다.

- 제목, 부제: 연구 계획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표시한다. 관심을 끌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인기 위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소속과 저자 이름: 성과 이름 그리고 대학교/기관이나 연구재단
- 감사의 글: 지원기관과 저자가 신세진 사람들의 이름 거명
- 초록: 서론, 방법론, 성과 그리고 토론에서 중요한 것을 각각 대략 두 개의 문장으로 짧게 요약
- 서론: 작업을 하나의 연구 분야에 고정하고 문제 제기, 연구 상황 그리고 부족해서 보완해야 할 지식을 열거
- 방법론: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저자의 행동.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이가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 연구 과정에서 생겨난 자료의 설명(표나 그림의 형태로) 그리고 그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주석)
- 토론: 문제 제기, 연구 상황 그리고 부족한 지식을 고려한 성과의 의미
- 참고문헌 목록: 사용한 모든 참고문헌
- 부록: 이해를 위해 중요한 자료. 하지만 요약한 형태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몇몇 분야에서는 그 밖의 항목을 더 추가한다. 예컨대 의학전문 잡지에 실린 소논문에는 보통 '환자', '치료 형태'나 '윤리적 관점'과 같은 하

위 항목이 들어 있다.

정기간행물은 연구 소논문의 형식을 정확하게 규정한다. 이에 덧붙여 모든 정기간행물은 '저자 정보'라고 하는 분과를 갖고 있는데, 이 안에 텍스트 포맷, 인용 방식, 표준 목차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종종 연구 보고의 내적 논리나 분야별 특수성에 대한 언급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정기간행물은 제출된 모든 소논문을 동료 평가 방식에 맡긴다. 그러니까 전공 분야의 다른 학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대개 익명으로 진행하고 소논문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문헌 보고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잘되어 있고 많은 학술적 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르가 바로 문헌 보고인데, 영어로는 'Literature Review'라고 한다. 문헌 보고를 보다 정확하게 연구하고 잘 분류한 존 스웨일스(John M. Swales)와 크리스티안 피크(Christiane B. Feak, 2000)은 이 영어개념의 두 가지 사용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념은 때로는 (특정 주제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평가하기 위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독일어권에서는 연구 상황으로 지칭한다. 그러니까 학술적 연구 맥락에서 연구 성과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첫 번째 개념 유형은 문헌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개념 유형은 연구 상황으로 지칭한다.

문헌 보고와 유사한 장르는 주석이 곁들여진 참고문헌 목록이다. 이것은 하나의 주제의 참고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때 모든 출판물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주해를 첨부한다. 드물지 않게 참고문헌은 주제에 따라서도 하위 분류한다. 주석이 곁들여진 참고문헌 목록은

문헌 보고를 위한 초기 단계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모든 텍스트를 요약하고 논평한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계속해서 평가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가공된 문헌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문헌 보고는 연구 분야에 주어진 문헌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문헌 보고는 독자들이 어떤 주제와 관련한 출판물을 신속하게 개관하도록 해준다. 사안이나 연구 분야 자체를 설명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것을 출간했는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썼고, 쓴 것이 연구 상황과 아울러 대상을 보는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초점이 모인다.

문헌 보고는 다음의 다섯 가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다.

1. 문헌 보고는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문헌 보고는 어떠한 출처를 참작하고 있는지 정확하고 신뢰가 가도록 진술한다. 이것은 어떠한 정기간행물을 고려하고 있고 어떠한 단행본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언어로 썼고 어떠한 시간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2. 문헌 보고는 결과를 평가할 적에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문헌 보고는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그것을 신뢰가 가도록 적용한다.
3. 문헌 보고는 연구/서술과 그 결과의 중요한 매개 변수를 총괄적으로 개관한다. 개관은 도표 형태나 문장 표시 선으로 작성한다. 이때 주요한 내용을 눈에 띄게 제시한다.
4. 문헌 보고는 특히 용어상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 정의를 제안하거나 문헌에서 개념을 차이가 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다.
5. 문헌 보고는 문헌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문헌을 분석하고 구조화한다. 그래서 연구/이론 형성의 경향과 구조를 밝힐 수 있다.

리뷰는 예컨대 그것이 연구 성과를 새롭게 평가하거나 드문드문 출간된 연구 보고로부터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정의하려고 시도할 경우 문제에 방향을 맞출 수도 있다. 리뷰는 결과 추세를 연구의 방대한 양에서 찾으려고 시도할 경우 메타 분석으로도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더욱 자세하게 정보를 얻어야 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방법론이 되었다.

때때로 비판적인 문헌 보고라고 하는 명칭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독창적인 입장 표명과 결부되어 있는 이론적인 세미나 리포트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참고문헌 서술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 이외에도 문제 제기과 성과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데 커다란 가치를 둔다.

평론과 서평

독일어권에서 텍스트를 비평적으로 재현하는 유형은 오로지 평론만 있다. 미국 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북 리포트(Book Report, 서평)는 교수법상의 장르로 정해져 있다. 비록 이것이 지식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논증을 학습하는 데에 유익한 텍스트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유감스럽게도 독일에서는 교수법상의 장르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서평을 할 때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제한할 수 있고 숙제에서처럼 다수의 출판물과 관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텍스트를 논평적으로 재현할 적에 학술적 텍스트 논평의 전형적 유형을 연습할 수 있다.

서평과 같은 평론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볼 때 삼분 구조를 갖고 있다(Poenicke, 1988, P.103 참조). 첫째, 저작물을 맥락 안에 넣는다. 둘째, 작품의 내용을 재현한다(최소한 선택된 부분만이라도). 셋째, 입장을 평가적으로 표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일과 결부시킬 수 있다.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저작물의 맥락과 관련해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텍스트가 어떠한 담론/맥락에서 생겨났는가?
- 텍스트를 어떠한 목적에 이용하는가?
- 저자가 누구인가?
- 저자가 전공 분야의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저자가 어떠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가?
- 연구를 어떠한 의도와 목표 설정으로 썼는가?
- 어떠한 독자를 위한 것인가?
- 텍스트를 학술적 맥락에 넣을 수 있는가? 역사적 맥락 아니면 실무적 맥락에 넣을 수 있는가?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내용 재현은 규모에 따라서 맥락에서 맥락으로 바뀐다. 학술적 평론에서 내용을 논평하는 일은 보통이다. 그리고 이때 연구의 본질적 관점을 요약하고 독창적인 의견을 추가하지 않고 공정하게 묘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텍스트를 논평한다는 것은 의역하거나 여러 목소리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이미 60쪽 이하와 190쪽 이하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용을 고려해서 텍스트를 논평하고 있는 예를 보기로 하자.

저자는 새로운 글쓰기 연구의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 그는 특히 플라위아와 헤이스(1980)의 연구를 증거로 끌어내고 있다. 그는 우선 텍스트 생산에서의 인지적 과정의 입장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때 순수한 인지적 단초의 '주관적 입장'을 비판한다. 그의 독특한 이론적 단초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는 글쓰기의 인지적 조절과 마찬가지로 글쓰기의 맥락이 똑같이 중요하다.

이 텍스트는 단순히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행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추론한 것을 보고하고 있다. 특수한 언어로 텍스트를 재현하고, 자구적으로 인용한 구절은 인용부호로 표시한다. 다만 핵심 구절과 핵심 개념은 자구적으로 인용해야 한다. 게다가 모든 논평을 할 적에 여러분의 임무는 서평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위한 통신원의 임무다.

세 번째 구성 요소인 평가적인 입장 표명은 학술적 연구의 다양한 질적 기준과 관련시킬 수 있다.

- 텍스트의 구성과 논리
- 연구의 의도와 주장(의도에 도달했는가?)
- 한 분야의 지식 발전을 위해 다룬 문제와 문제 제기의 의미
- 이 연구가 기존 연구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 경험에 근거한 단초가 공감에 가는가? 입증했는가? 조화로운가?
- 결과를 논리정연하게 해석했는가?
- 이 연구는 (나머지 연구와 관련해서, 이론 형성과 관련해서, 세미나 주제나 응용 분야와 관련해서 볼 때) 어떠한 결론을 끌어내었는가?

어쨌든 서평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평은 대개 평이 관련되어야 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다룰 장을 하나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 장은 다만 요약해서 언급하면 된다. 텍스트를 개괄적으로 요약하는 일과 왜 특정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는지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스벤 소렌슨(Sven Sorenson, 1988, P.85)은 서평이 답아야 할(답을 수 있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책 제목과 저자

- 대상, 설명 패턴, 맥락 그리고 저자의 의견
- 한 절에 들어 있는 내용의 개괄적 요약(시놉스)
- 장의나 문제 제기한 주제의 내용과의 관련성
- 책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이나 책을 통해 얻은 개인적 유익함
-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책에서 따온 인용

입장 글

많은 학술지에서 나타나는 장르가 입장 글이다. 이것은 주제 분야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새로운 이론적 강조점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입장 글은 그것이 이미 출간된 연구의 분석에만 관련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문헌 비평과 유사하다. 하지만 입장 글은 문헌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별로 무게를 두지 않고 오히려 주제나 문제와 관련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입장을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입장 글은 '연구 상황'으로 지칭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입장 글은 하나의 커뮤니티가 그 순간에 무엇을 타당한 지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그림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새롭게 강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입장 글은 전공 내부의 공공성을 위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한 연구 상황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시도한다. 이때 대개는 독창적인(해석상의) 단초, 독창적 논제나 이론이 작성된다.

입장 글은 연구 보고와 문헌 비평에 비해서 덜 형식적이다. 따라서 이 글은 주제를 꼬집어내어 새롭게 다루는 데 자유롭다. 이 과정의 전제 조건은 기존 연구에 근거를 두고 중요한 모든 연구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일이다.

대학에서 순수 입장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

것은 대개 성공한 학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와 같은 글을 읽을 기회를 종종 갖게 되어서 그 글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판적 에세이(다음 절 참조)는 입장 글과 유사한 교수법상의 장르다. 이것은 입장 글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훈련하도록 해준다.

비판적 에세이

‘에세이’라는 말은 두텐(Duden)의 『어원론 사전』(1989)을 찾아보면 “문학적인 문제나 학술적 문제를 간결하고 품위 있는 형식으로 다루는 논술”이라고 되어 있다. 영어에서 ‘에세이’는 대학에서 쓰는 모든 숙제나 짧은 텍스트를 위한 상위 개념으로 사용한다. 거기에서는 대학생들이 독일의 숙제보다 길이가 더 짧은 텍스트를 써야 한다. 그곳의 대학생들은 에세이를 쓰기 위해 아주 짧은 작업 시간을 허락받는다. 그곳에서 ‘비판적 에세이(critical essay)’는 논증적인 글이다. 이 글은 논제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학술적 소재를 끌어낸다. 이때 ‘비판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반드시 비판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글 쓰는 사람이 지식과 전거 등을 이용해 조심스럽고 비판적으로 다루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와 반대로 독일에서 에세이라는 말은 안드레아 슈타터(Andrea Stadter, 2003, p.66)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저자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종의 문학적 산문으로 이해해 왔다. 그와 동시에 ‘에세이적인’이라는 낱말은 ‘비과학적인’이라고 하는 개운치 않은 의미도 덧붙여지게 되어 과학적인 근거보다 유창함에 더 가치를 두는 텍스트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독일어권에서는 ‘반성’과 ‘상론’이 이와 유사한 장르지만 이것은 다른 맥락(중등학교)에서 나타나므로 다른 기능과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독일어권에서 비판적 에세이는 최근에는 비로소 자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어권 대학에 다닌다면 비판적 에세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에세이를 쓰면서 훈련하는 과학적 논증 능력은 세미나 리포트와 같은 다른 텍스트에서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나는 계속해서 미국에서의 에세이 쓰기 전통을 추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세이를 독일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안드레아 슈타터(2003)의 제안을 따르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비판적 에세이를 위한 출발점은 엄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주제다. 이는 주제를 논제로 압축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논제란 늘 분명한 입장(포지셔닝)을 유지해야 한다. 이 입장을 처음에는 너무 강조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보다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비록 에세이가 궁극적으로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주장을 세분화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관찰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논제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보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 라틴어 수업과 그리스어 수업은 학교에서 별 볼일이 없다.
- 은밀한 감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부끄러움에서 생겨났다.

논제는 바로 처음이나 아니면 서론의 끝에 올 수 있다. 논제는 표제를 보고 연상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논제는 아무런 문제없이 문제 제기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가?
- 은밀한 감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부끄러움에서 생겨났는가?

논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논거로 증명할 수 있도록 엄밀하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구의 온난화는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논제는 사실 흥미 있고 중요한 논제일 수 있지만 고려해 보아야 할 많은 논거, 증거, 이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에세이도 여기에 다른 여지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논제를 하나의 부분 관점으로 축소함으로써 논제를 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고 어떠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등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논제를 정했으면 우선 이 논제를 지지하는 적절한 논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거란 논제가 어떻게 옳은지를 뒷받침해 주는 언어적 구성물이다. 그렇지만 논거 하나만으로는 학술적 텍스트에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의 진술을 위한 증거 자료(전거)도 필요하다. 이 전거는 대개 과학적 연구 성과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에 의지할 수 있다.

- 실험 결과, 통계, 자료, 사실과 같은 과학적 자료
- 이론이나 학설과 같은 과학적 입장(이차문헌)
- 기록, 문서, 서류, 발굴물 등과 같은 역사적 출처나 문학적 출처로부터 온 전거(증빙자료)

특정 논거가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지 바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전거가 왜 논제를 지지하고 있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 학자들에게 이것은 보통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연구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별로 이견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학자들이 아닌 수신자를 위해 논증을 한다면, 특정 연구의 단초 이면에 들어 있는 원리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예컨대 학술 단체의 구성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단체의 권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반대 논거를 서술하는 것(반대 논거를 지지하는 증빙 자료를 포함하

독자의 질문	글 쓰는 사람의 대답
당신의 주장/논제는 무엇인가?	내가 주장하는 바는...
당신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전거를 갖고 있는가?	나는 ...와 같은 전거를 제시한다.
당신은 이 전거가 당신의 주장/논제를 어떻게 지지하고 있다고 믿는가?	내가 일반적인 원리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주장/논제에 의구심이나 이의가 있는가?	그렇다.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첫째... 둘째... 셋째...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가?	그렇다. 하지만 단지 ... 경우와 ... 경우에 한에서만
다른 의구심은 없는가?	나는 ...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주장/논제는 얼마나 분명한가?	나는 주장/논제를 ...에 제한한다.

도표 16 부스, 콜롬브와 윌리엄스(1995)의 논증 도식

여)은 모든 비판적 에세이의 의무다. 이것을 제시하고 나서야 비로소 에세이는 ‘과학적’ 내지는 ‘비판적’ 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에세이가 모든 입장을 균형 있고 공정하게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 모든 논제는 반대 논거를 공정하게 다루고 논박하는 경우를 통해서 가장 잘 지지할 수 있다.

반대 논거와 씨름하는 것은 자신의 논제를 제한하거나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논제에 일부나마 의구심이 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논제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논제가 모든 경우에 타당한가? 그리고 이 논제를 모든 현상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이용해 논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논제를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특히 과학적 사고를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논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이끌어낼 수 있고 논제가 통용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세이의 성과는 논제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논제가 더욱 확실해질 수 있다.

과학적 논증을 상세하게 연구한 부스, 콜롬브와 윌리엄스(Booth,

Colomb & Williams, 1995)는 사람들이 과학적 논증을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가를 제안했다. 도표 16은 과학적 논증의 형태를 위해 그들이 만들어낸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구조는 동시에 수사적 무늬의 의사소통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부스, 콜롬브와 윌리엄스(1995)의 도식과는 상반되게 논거와 전거를 구분하여 관찰할 것을 권한다. 논거는 더 이상 논제의 타당성에 대한 이유를 명명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전거는 이 이유가 설득력 있게 여겨지도록 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이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논제: 라틴어 수업과 그리스어 수업은 학교에서 별 볼일이 없다.

논거: (1) 라틴어 수업은 그 타당성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교육에 근거한다. (2) 라틴어는 통용되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3) 라틴어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논거 1에 대한) 전거: 수업의 필수 요소로서의 라틴어 수업은 그리스식 민주주의가 인도주의 정신의 모범으로 강조했던 고대를 예찬하는 시대에서 유래한다.

(논거 2에 대한) 전거: ...

에세이를 완성하기 전에 우선 논거와 전거를 표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논거에 모순이나 결함이 없는지 그리고 일련의 증거에 결함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비판적 에세이를 작성할 때 중요하다. 중요한 모든 논거는 전거를 통해서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전거가 존재하지

않는 논거는 단념해야 한다(아니면 전거가 없다고 스스로 밝혀야 한다).

발표 요지문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세부터 사용해 온 전통적인 장르가 바로 발표 요지문이다. 오늘날에는 그 기능이 조금 변해 이름도 그 사이에 ‘핸드아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토론을 유발하거나 발표의 핵심 내용을 문자로 설명하기 위해, 발표나 강연 때 부수적으로 배부하는 원고다.

이것은 시험 볼 때에도 시험관과 수험자 사이에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종종 사용한다. 발표 요지문은 다루고자 하는 내용물의 주제를 파헤쳐서 논제로 환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장을 잡아낸다. 그 결과 사람들은 논제의 진실성을 더 잘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발표 요지문은 개별 논제를 둘러싸고 구성되어 있는 비판적 에세이와는 약간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발표 요지문은 논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때 논제는 그때그때마다 참고문헌이나 전거와 함께 간단하게 제시된다. 독일어권 대학의 모든 논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학술적 출처의 근거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논제는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어야 하거나 자료를 요약해서 설명해야 한다.

발표 요지문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른 저자의 의견을 다룰 수도 있다. 논제가 토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대로 납득이 갈 경우, 사람들은 논제를 반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열띤 토론이 일어날 수 있다(하지만 특별히 지배적인 여론에 역행하지 말아야만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 이 방법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청중이 발표 요지문을 옆에 놓고 함께 읽어나갈 수 있도록 발표 요지문을 발표의 개별 항목에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발표 요지문에

세분화된 도표나 통계 같은 자료를 더 첨가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강연에서는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시각적인 설명 수단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핸드아웃으로 인해 주목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핸드아웃은 발표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배부해야 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텍스트 모음(집)이다. 원래 포트폴리오 개념은 미술에서 왔고 거기에서는 그림이 들어 있는 작품집을 지칭한다. 이것으로 예술적 능력을 검증한다. 이러한 원리를 텍스트 작업에 응용했다.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수업 상황에서 사람들은 (작문시험이나 필기시험과 같이) 텍스트를 전통적으로 평가하는 형태에 만족하지 못해서 학습자들에게 텍스트 모음집을 제출하라고 하는 쪽으로 바꿨다(Bräuer, 2000; Winter, 2004; Brunner, Häcker & Winter 2006을 보라). 이때 텍스트는 보통 수업에서 작성하지만 집에서 고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피드백을 받는 것은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권장한다. 텍스트를 작성할 때 성찰한 내용에 대해 논평을 써내는 것도 보통 있는 일이다.

포트폴리오는 텍스트를 다루는 새로운 형식을 반영한다. 포트폴리오는 우선 텍스트 생산의 복잡한 형식을 허용해야 하고, 작문교육에서처럼 텍스트를 단숨에 써 내려가라고 강요하지도 말아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중간평가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 텍스트를 수정하고 제출하거나 평가하기 전에 글 쓴 사람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포트폴리오는 텍스트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형식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는 텍스트를 재능심사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지원을

할 적에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에서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면 그 안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담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견해, 사전 숙고, 계획 구상, 텍스트의 성찰, 다른 사람의 피드백, 조사 결과, 학습 일지 기록, 초고 그리고 삭제된 구절을 담을 수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글 쓰는 사람과 평가자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생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포트폴리오는 텍스트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포트폴리오는 연구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쓰는 모든 텍스트를 수집하는 것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포트폴리오는 독창적으로 작업한 연구의 성과를 점검해 보는 일종의 증명서가 된다. 이는 증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대학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포트폴리오는 텍스트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여러 단계에 걸쳐 발전시키고 손질할 수 있다. 개별 작업 단계 사이에서 시간을 더 길게 쓰면 쓸수록 텍스트를 더 잘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신의 텍스트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진다. 제출 기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그런데 세미나 리포트를 쓸 적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학습 일지, 향해 일지, 습작 일지

최근 대학에서 확고한 기반을 잡은 텍스트 유형이 바로 학습 일지다. 이는 향해 일지나 습작 일지로도 불린다(1장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이것은 반쯤은 사적인 텍스트 형식으로 학습 경험을 확인하고 성찰하는데 도움을 준다. 학습 일지는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학습 성과보다 학습 과정 자체를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하고, 학습 자료, 학습 과정, 학습 수단, 강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씨름을 하며, 교수와는 어떻게 논쟁을 하고 함께 배우는 사람과는 어떻게 토론하는지가 중요하다. 학습 일지가 강의에 수반해서 제출될 경우(그리고 교수를 이해시켜야 하는 경우), 대개 학습 일지를 위한 중점 사항이 제시된다. 무엇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습 일지는 오늘날 보통 학습 강령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학습 강령 위에서 편성된 수업을 받을 경우, 과제를 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이어서 학습 일지에 여러분의 경험을 기록해야 할 것이다. 학습 일지의 전통적인 형식은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고 생각을 적을 수 있는 노트나 일기 형식이다. 물론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구 일지'나 '학습 일지'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날짜나 주제 관점에 따라 그 안에 문서 기록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책도 장점을 갖고 있다. 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학창시절 일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그 당시에 물고 늘어졌던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 자신의 독창적인 지적 발전의 기록물도 되는 셈이다.

학습 일지는 일반적으로 학술적 표현 형식과 개인적 표현 형식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학습 일지는 학습에서 얻은 경험을 독창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성찰해야 하는 과제를 덜어줄 것이다. 여기에서 '성찰하다'라는 말은 사안을 어떻게 숙고하고 있는지 글로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학습 일지라고 해서 무조건 학술적인 표현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빙성, 그러니까 지적인 성실함을 요구한다. 학습 일지는 여러분을 자신과 관계를 맺게 하고 여러분에게 과학

적 사고를 위한 독자적인 언어를 갖도록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과학적 사고, 학술적 개념과 표현방식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고 안에 천천히 통합시킬 것이다.

강의가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습 일지나 습작 일지는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사안을 병행해서 배우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익사할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중요한 사안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일지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할지 정리 형태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글쓰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예컨대 졸업논문이나 긴 세미나 리포트를 쓸 적에는 학습 일지나 습작 일지가 특히 중요하다. 이럴 경우 여러분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오랫동안 씨름하고 그것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때 컴퓨터는 옆에 없고 생각은 잔뜩 떠오르는데 이 모든 생각들을 적어두기 위해 바로 학습 일지가 필요한 것이다.

학습 일지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까?

- 언젠가 답하고 싶은 모든 종류의 질문
- 아이디어, 논제 또는 가설
- 정서적으로 감동시켰던 체험
- 따로따로 경험했던 주제 사이의 관계
-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조사하고 싶은 주제
- 모르고 있는 이름
- 새로운 개념
- 언젠가 읽고 싶은 책의 제목
- 텍스트를 위한 적당한 목차

학습 일지를 쓸 적에 특히 주의할 사항은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글쓰기가 힘들면 생각과 잘 조화되지 않는 너무 복잡한 언어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복잡함을 한두 단계로 줄여 글쓰기가 유려해야 한다.

학습 일지는 글쓰기 과정을 안내하고 자신의 글쓰기 역사를 성찰하게 해주는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학습 일지는 글쓰기와 글쓰기 과정에 대한 숙고를 문서로 작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글을 쓸 적에는 일반적으로 사고의 결과를 확인하는데, 이 사고가 결국은 텍스트로 남는다. 숙고해서 내린 결정은 아직은 언급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게르트 브로이어(Gerd Bräuer, 2000)는 학습 일지를 자아성찰과 과정성찰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자아성찰을 위한 자극으로 일련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 나의 글쓰기 역사: 나의 글쓰기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언제 처음으로 글쓰기를 체험했는가? 과거의 체험으로는 편지, 작문, 일기를 들 수 있다. 우리 집에서 글쓰기와 읽기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나의 글쓰기는 어느 정도의 높이와 깊이로 발전하였는가? 누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는가? 본보기로 삼은 사람은 누구였나? 이상형과 모범은 무엇이었나? 즐겨 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어떠한 장르였던가? 내가 발전시키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능력이었나?
- 저자로서의 나: 저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요구는 무엇인가?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일찍이 다른 사람의 불만을 샀던가?
- 나의 동기: 더 나은 글쓰기를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에너지를 투자하려고 하는가?(악기, 스포츠, 취미, 외국어 등과 같은 다른 영역에 투자한 것과 비교해서 볼 때) 글쓰기가 내게 중요한가? 나의 강점과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 나의 글쓰기 방식: 글을 쓸 적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가? 텍스트를 어떻게 수정하는가? 확정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글쓰기를 누구와 상의하는가? 글쓰기가 잘되고 있을 때 어떠한 감정

이 드는가? 곤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텍스트를 언제 제출하는가? 언제 평가를 받는가? 무의미한 것을 쓴 적은 언제고 아무도 내가 쓴 텍스트를 읽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습작 일지를 논문을 작성할 적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지는 중요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는 일종의 성찰 대상이 된다.

- 이 논문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어떻게 행동하는가?
- 이번에는 어떠한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가?
- 시간 계획
- 누구와 협의할 것인가?
- 출발점은 무엇인가?
-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 그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배운 것은...
- 문제 제기
- 이론적 범위
- 행동방식
- 첫 번째 (현재의, 새로운) 목차 구상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들어 있는 희미한 상태의 생각을 선명한 상태로 적는 것이다. 적지 못한 모든 것은 늘 반복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웹을 위한 텍스트

웹을 위한 텍스트를 쓰는 것은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직업에서도 점점 더 빈번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는 많은 설명 가능성, 구성 가능성,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웹을 위한 글쓰기가 특별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짧게 요약할 것이다. 예컨대 슈테판 하이인크(Stefan Heijnk, 2002)의 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나는 롤프 토데스코(Rolf Todesco)와 함께 스위스 빈터투르 연구소에서 응용 언론학을 위한 강의를 두 번 했는데, 이 강의에서 우리 학생들은 세미나 리포트 대신에 세미나 주제 가운데 하나를 독창적인 웹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것은 학생들에겐 대단한 도전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미나 리포트 글쓰기에서 겪는 보통의 내용상의 문제를 배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체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방식도 이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룹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누어서 진행했고 모두가 모든 능력을 다 습득할 필요는 없었다. 전통적인 세미나 리포트와 웹 프레젠테이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에 있다.

- **기술:** 웹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구성하고 출간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고 덧붙여 프로그램 언어인 HTML을 배워야 한다(HTML 편집기나 콘텐츠-매니지먼트-체계면 보통 충분하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작업을 멀티미디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의에서 오디오와 비디오 편집 기술도 배웠다. 인터넷 테크놀로지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서, 웹 디자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매니지먼트-체계는 문외한도 다룰 수 있도록 점점 더 단순화되고 있다.
- **내비게이션:** 인쇄 텍스트는 다만 내용 목록(경우에 따라서는 표제어

목록이나 저자 목록도)만을 조종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홈페이지에서는 매우 복잡한 내비게이션 형식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목적에 적절하고 직관적으로 유익한 내비게이션 원리를 선택해야 한다.

- **비선형성:** 웹 텍스트는 선형성의 원리와는 아주 차별화된 방식으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많은 항목의 내용을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독자가 텍스트를 앞에서부터 뒤로 읽는 대신에 정보를 통해서 독자적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웹 텍스트는 링크를 통해서 다른 단위와 연결해 찾기 쉽고 읽기 쉽도록 더 조그만 단위로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 텍스트의 모든 항목에서 핵심을 짚어 정확하게 다음 항목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모든 항목에서 다양한 다른 항목으로 방향을 잡게 해주는 텍스트 망을 만들어야 한다.
- **인터넷 이해 학습:** 인터넷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독자적 공간을 형성한다. 인터넷은 정보를 찾고 이용하고 평가하는 지식을 요구한다. 인터넷에서도 주목을 받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데, 이는 모든 웹 사이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현을 규정해야 하고 웹에서 손수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다매체성:** 비록 웹에서도 텍스트가 기본 매체라고 할지라도, 이 웹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는 인쇄 텍스트보다 사진,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소재와 더불어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특별한 능력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능력은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직업적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 **담론상의 가변성:** 세미나 리포트는 하나의 장르에 고정시켜 진행하는 반면에, 웹에서는 다양한 많은 장르를 서로 결합하여 설명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 자기묘사, 배경 정보, 인접 주제와의 연결, 도해, 광고 등은 핵심 주제에 덧붙일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서로 결합할 수

있다. 오로지 학술적 텍스트만을 담고 있는 웹 사이트는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웹 사이트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기관과 관련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신뢰할 만한 영상이나 비디오 자료를 얻고 싶어 하며 필요할 경우 배경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상호 작용성: 끝으로 웹 사이트는 쌍방향 요소도 허용한다. 독자는 이를 이용하여 텍스트에 반응할 수 있다.

물론 웹에서도 변함없는 것은 학술적 텍스트의 언어적 요구다. 이는 학술적 텍스트가 대중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다. 정확성, 체계, 논증, 명확성은 학술적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텍스트의 필수적 속성이라서 지켜야 하고 오로지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야기

이야기 역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이용하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야기는 심지어 경험을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최초의 형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문학이 이야기를 문자를 기반으로 한 예술로 발전시켰다고 할지라도 이야기는 분명 구두 형식을 통해서만 들어진다. 이야기는 비유를 통해 이해할 수 있고, 행동 보고의 특수한 형태를 통해 규정하며 이야기가 갖고 있는 주관성,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에 종속해서 규정할 수 있다.

학문에서 이야기 텍스트는 드물게 사용한다. 심지어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인츠 크레첸바허(Heinz L. Kretzenbacher, 1994)가 이를 기술한 바 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학술적 텍스트는 이야기 텍스트와 실제로 대립하고 있다. 이야기 텍스트는 주관적이고 행동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사건을 관찰한다. 이야기 텍스트는 늘 개별 사건

이나 개개의 사건 연속체와 관련되어 있어서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 이 밖에도 이야기 텍스트는 그것이 경험을 강조해서 설명하거나 반복하는 사건을 극화함으로써 정보 제공과 유희의 기능을 갖는다. 이런 것은 학술적 텍스트에서 기피한다. 따라서 이런 것은 학문이 어째서 이야기를 그토록 꺼리고 있는가 하는 이유가 된다.

라이너 토츠케(Rainer Totzke, 2005)는 벌써 플라톤이 그리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러티브를 학술적 텍스트 유형의 전범에서 제외시켜 특수한 장르로 규정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학술적 텍스트는 이미 고대에 탈내러티브되어, 정보가 형식·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서술 양식에 고정되었다. 그와 동시에 지식은 그때그때의 화자에 종속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맥락과 무관했다. 토츠케(2005, p.28)가 말한 것처럼, 이때 “관념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지식 묘사를 위해 내러티브적 지식 묘사는 설 자리가 없었다”.

지식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이야기의 역할은 최근에야 비로소 새롭게 평가받았다. 이야기는 실용 텍스트에 비해 세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즉 이야기는 읽기 쉽고 간직하기 쉽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쉽다. 물론 단점도 있다. 이야기는 조작적이고 암시적이어서 청중의 비판적 사고를 실용 텍스트보다 쉽게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이야기는 신빙성이 덜하고 청중이나 독자에게 종종 ‘일화’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거의 불가피하게 이야기의 질을 전제로 서술해야 하는 역사와 같은 ‘내러티브’ 과학도 있다. 역사 텍스트가 이야기 텍스트가 된다는 사실은 그것이 사건을 시간에 따라 연속해서 묘사해야 하고 바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물론 그와 같은 이야기는 허구여서는 안 되고 관찰과 전거를 댈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상에 대한 압축은 우리가 모든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특질을 갖고 있고, 그 이야기는 허구적일 수도 있고 신뢰할 만하기도 하다. 맥락은 정리해 있어야 하고 인과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이야기는 사건의 끝없는 흐름에서 독창적인 사건을 포착하고 서로 결합시켜서 그것이 인과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Kruse, 2001; 2002를 보라).

따라서 이야기 텍스트는 특히 대중과학적 서술방식의 맥락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문외한에게 효과적이고 아무 불편 없이 연구 정보를 제공할 적에 의미가 있다. 몇몇 연구 장려기관(특히 미국에서는)은 학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학술적 보고 이외에 내러티브로 작성된 설명도 프로젝트 지원에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비 라인만(Gabi Reinmann, 2005)의 총서는 조직, 경제단체, 학교에서의 경험 지식을 중개하기 위한 서사적 텍스트의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학 문서 작성

공학 분야를 공부한다면 때때로 공학 문서 작성 영역에서 유래한 텍스트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기술적 행위를 언어화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텍스트 생산 영역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서술은 기술적 재화를 평가하는 모든 지점에서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구 - 전개 - 검증 - 생산 - 품질 조정 - 설비 - 감독 - 사용 지침 - 수리 - 폐기물 처리에서 모두 필요하다는 말이다. 생산을 위해 그때그때 기여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이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일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문서 작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매번 뒤따르는 연구 그룹을 위해, 그리고 사용, 특허출원, 증명서 발급, 기술적 실험, 판매와 기술적 서비스를 위해 중요할 수 있다. 공학 문서 작성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공학과 그 사용을 이해가 잘 가도록 서술하고 지침을 제공(설비, 사용, 감독)
- 공학적 서술의 시각화
- 공학적 정보의 개념적 통일(용어 작업)
- 공학적 정보를 여러 언어로 서술
- 공학적 정보의 문화적 조절(지역화)
- 공학적 지침에 나타난 손실과 위험을 적절하게 암시함으로써 법적 안전 조치 확보

공학 문서 작성은 오늘날 독자적인 학문 분야고 고유한 직업 영역이다. 여러 전문대학과 두 개의 공과대학(RWTH 아헨 대학과 TU 쾰른 대학)에서 사람들은 기술적 문서 작성을 전공한다. TEKOM은 기술적 편집인들이 제휴하고 있는 단체다. 이 웹 사이트를 통해서 그 밖의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공학 문서 작성은 기술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뿐만 아니라 복잡한 조직에서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용어상의 기초를 작성하기 때문에도 의미가 있다. 복잡한 기술은 한 기업체의 여러 부서 간 협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고유한 언어화 전통 개념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의 기업들의 협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공학 문서 작성은 이와 같은 성서상의 언어 혼란(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비롯된 언어 혼란으로, 여기에서는 공통의 언어가 없으면 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옮긴이)을 없애고 필요한 용어를 통일시켜야 하는 과제도 갖고 있다. 용어상의 통일은 포괄적인 언어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으로 여러 언어로 진행한다.

공학 문서 작성은 늘 하나의 목표 집단이 공학적 기기를 다루게 하거나, 기술적 생산물에 대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할 목적을 충족한다. 사용 지침과 장비 설명은 대개 상이한 지식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작성되어 있고 그에 상응해서 이들이 조건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디트리히 율(Dietrich Juhl, 2002, p.21 이하)은 그와 같은 지침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성능 설명: 기기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고 사용자는 그 기기를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기기 설명: 기기의 모습은 어떻게 부분들은 어떻게 불리고 어디에 사용되는가?
- 행동 설명: 사용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기능방식 설명: 기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개별 구성 성분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공학적 기초: 회로도, 설계도, 작업 생산 공정도 등

07

낯선 맥락과 외국어 그리고 낯선 장르에서의 글쓰기

글쓰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보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
- 루트비히 라이너스